

국내 유일 선인장 야생 군락지...천연기념물 지정

<25>천연기념물 제429호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데스크승인 2014.08.20 이윤주 기자 | yjhn@jejunews.com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해안 바위틈에는 천연기념물 제429호로 지정된 선인장이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다.

이 선인장 군락지는 선인장의 자생 상태를 잘 보여주는 국내 유일의 야생 군락지로 분포적인 측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아 1976년부터 제주도 기념물 제35호로 지정·관리돼 오다 2001년 9월 11일 6914㎡의 면적이 천연기념물로 승격돼 관리되고 있다.

이곳 선인장은 멕시코 원산으로 형태가 손바닥같이 생겼다 해서 '손바닥선인장'이라고 불린다.

선인장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해 좀처럼 고사하는 일이 없고, 조직 내에 많은 수분을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어 긴 가뭄에도 잘 견딘다.

선인장에 나 있는 가시는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잎이 변형된 것이며 두꺼운 잎처럼 보이는 부분은 줄기이다. 여름에는 노란색 꽃이 피고, 가을에는 꽃이 진 자리에 무화과와 비슷한 형태의 성인 엄지손가락만 한 자주색 열매가 열리는데 이 열매를 '백년초'라고 한다.

이곳에서 선인장이 자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열매나 줄기 등이 쿠로시오 난류를 타고 월령리 해안으로 밀려와 모래땅이나 바위틈에서 야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집에서 가꾸던 것이 자연적으로 퍼졌다는 설도 있으며, 1920년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출신의 원양선원 고모씨가 태평양 적도 부근의 남양군도에서 가시 돋은 풀을 가지고 와서 '떡꽃'이라고 퍼뜨린 것이 선인장이라는 설도 있다.

이 밖에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발간된 '백년초 이야기Ⅱ'는 백년초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다.

월령리 마을에 전하는 전설에 의하면 백년초는 '당동' 할아버지가 가져다 줘서 심었다고 한다. 여기에 나온 '당동'은 지명으로 당시 당나라였던 중국을 왕래하던 상단에 소속돼 있던 '당동' 출신이 중국에서 가져오지 않았냐하는 추측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령리 선인장군락은 관련 문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도입된 유래를 명확히 밝힐 수 없으나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오래 전부터 군락을 이뤄 자생하고 있다.

백년초는 신비한 식물로 백 가지 병을 고친다는 설과 이 열매를 먹으면 백년을 산다는 설이 있어 예로부터 가래를 삭이는 소담제나 열을 내리는 해열제 등의 민간 약재로 널리 쓰였다.

마을에서는 쥐나 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집 경계 돌담에 옮겨 심었다. 이는 선인장의 많은 가시가 동물의 진입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2008년 천연기념물의 이미지를 살리고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사업비 총 4억원을 투입해 길이 214m, 너비 2.5m 규모의 목재 산책로를 조성했다. 또 팔각정자를 만들고 휠체어와

유모차 등도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작과 종점 부분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